

靑紅으로 펼치는 禪의 미학

'선禪-2013 법관스님'展

"저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곧 수행은 아닙니다.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다음 나머지 시간에 그림을 그리죠. 다만 그리는데 그 순간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그림이 되죠"

법관 스님의 '선禪-2013 법관스님'이 4월 19~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단순한 원색 채색으로 순간순간 마음의 법문을 붓으로 표현해낸다.

법관 스님의 선화는 먹이 아닌 빨강과 파랑의 향연이다. 왜 먹이 아닌 채색으로



파랑바탕에 붉은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 법관 스님 선화.

현한다. 세상은 운통 파랑기도 하지만 또 붉기도 하고 텅 비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도자기가 붓글씨와 자리를 잡기도 하고 파도가 출렁이기도 하며 꽃이 피어올라 세상에 향기를 전한다.

그래서 스님의 그림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원색적 색감이 무궁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며 심연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스님은 그 무한한 선의 세계를 이렇게 말한다.

"마음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붓을 따라 만조하여/ 붉은 색조 한입 물고 솟구쳐/푸른 물속 거꾸로 치달으니/ 내 어리석음 그대도 드러나네/ 한발 내딛는 것이 은산철벽이라/ 그림 속 저 차가운 물/ 건져 올릴 수 있다면/ 내 어찌 붓을 내 던지지 않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

법관 스님은 현재 강원도 양양에서 정진중이다. 오프닝은 4월 19일 오후 5시. (02)580-1300 정혜숙 기자

4월 19일~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선화를 그리려는 질문에 스님은 사찰 명화와 단청을 보다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빨강과 파랑을 통해 여백을 표현하고자 했다.

"단조로운 가운데에서도 선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먹으로 선을 그리면 여백이 남잖아요. 제 그림 역시 채색을 하지만 여백을 많이 두어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얻어진 선적인 느낌을 드러내다보니 자연스러운 채색이 나오게 되었습니"

스님의 그림은 전통과 현대, 구상과 비구상을 오간다. 그래서 집부름에서 하늘색까지 혹은 셋방간에서 주황까지 채도의 차이를 통해 사물을 표현하고 또 禪을 표

통도사박물관 '오덕사 괘불탱전'

4월 12~10월 12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부여 오덕사 괘불탱(보물 제1339호)을 4월 12~10월 12일까지 전시한다.

오덕사는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금계산(金鷄山)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다. 창건 당시 뒷산인 금계산에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하여 오덕사라 불리며, 사찰과 관련된 사적(寺蹟)이나 관련 기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덕사 괘불'은 1768년(영조英祖 44)에 제작된 대형 야외의식용 불화다. 화면은 세로 857.0cm, 가로 558.0cm 크기의 삼배좌상에 본존인 입상 석가여래를 크게 강조하고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배치했다.

오덕사 괘불은 구성과 색채가 다른 괘불과 크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통도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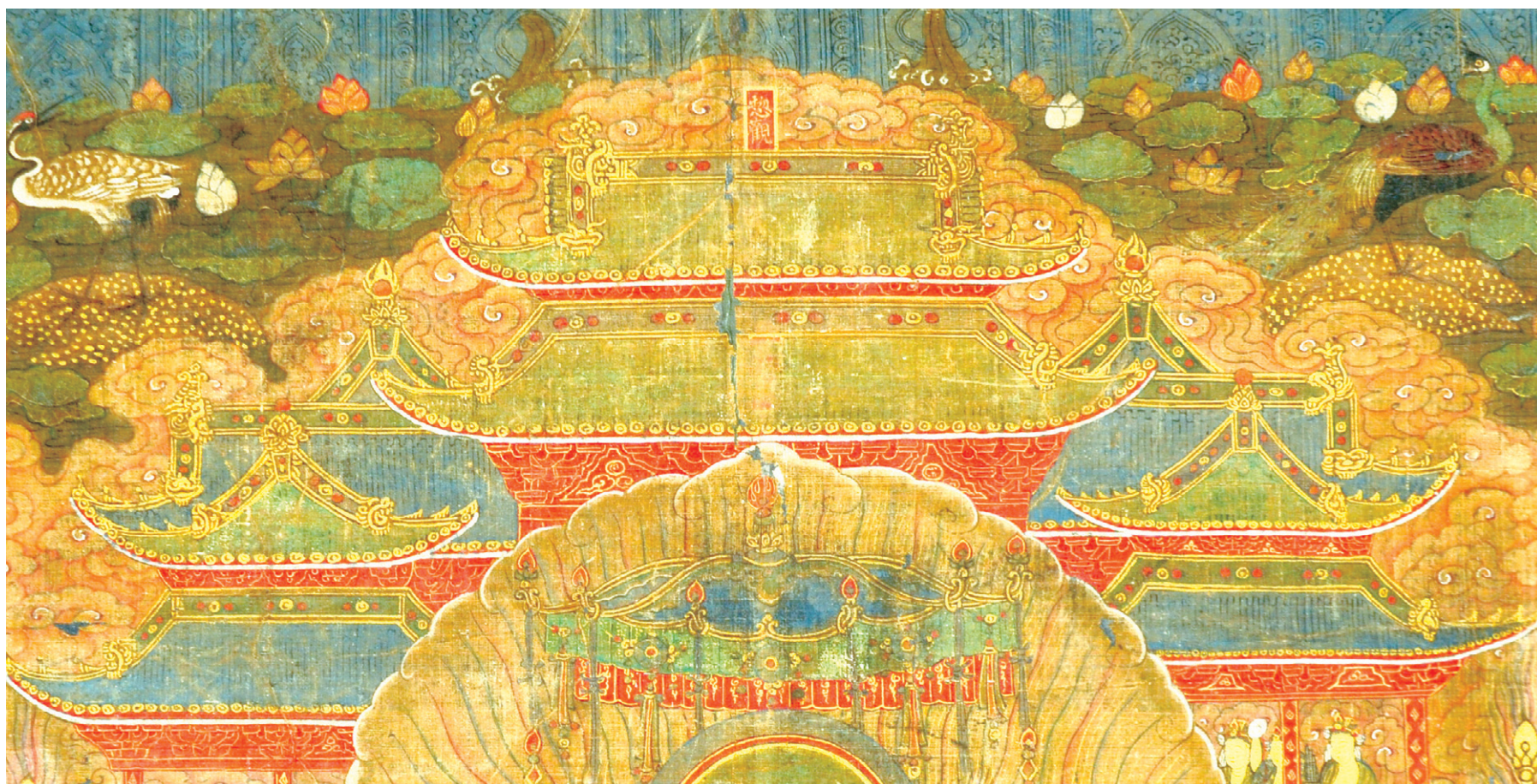
오덕사 괘불

물관은 "대부분의 괘불들이 본존인 석가여래상의 신체를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오덕사 괘불의 석가여래상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하체를 길게 표현하여 키를 매우 크게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통 괘불이 상체를 크게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덕사 괘불은 매우 과격적인 변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치미(鷓尾)→용미(龍尾) ㉔

용마루 끝 '용꼬리'가 놓이는 것 당연



일본 지온인 소장 1323년 고려관경 변상도. 용으로 장엄한 지붕끝에 보이는 것이 바로 치미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치미는, 고대 건축에서 특히 궁궐이나 사찰의 법당 등,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얹는 기와를 말한다. 궁궐이나 법당이 라는 건축을 완성할 때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삼국시대 백제나 신라의 치미들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은 현실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치미(鷓尾)이다.

지붕에 얹은 솔개의 꼬리 '의문'

그러면 치미란 무엇일까? 경주 생활 15년 동안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치미였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처음 보았을 때 마야 병사의 투구 같았다. 아무리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궁궐터와 금당 터에서 반드시 출토되는 치미(鷓尾)가 무엇인가 하여, 사진을 찾아보니 '올빼미'라 했다. 실망이 커서 '올빼미 꼬리'라고 부르며 자조(自嘲)했다. 다른 사진을 찾아보니 '솔개'라고 했다. 그제야 일반학자들이 솔개라고 인식했음을 알았다. 치미의 형태가 긴 날개

중국 고대 우주생성론 반영

용꼬리 솔개꼬리로 불려서야

형이상학적인것 그대로 인정해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와 전문가들도 관습적으로 치미라고만 불렀던 '솔개'라고 말하는 경우를 듣지 못했다. 따라서 치미라는 것이 '솔개꼬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솔개꼬리'일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솔개꼬리를 표현했을까?

치미라는 용어는 중국 진(晉:265~419)에서 처음 썼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치미라고 써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치미의 조형에서 영기문의 조형요소를 찾게 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요즘에도 '영기-영기문-영기화생론'을 점점 더 정교하게 정립하여 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글을 읽으려면 나의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론이 방대해서 매화 이론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미술의 탄생]이라는 저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영기화생론'이란 이론을 정립해 가면서 비로소 그동안 틀린 용어들이 눈에 잡히기 시작했다. 불교와 도교가 원용을 이루어 성립한 불교미술에는 중국 고대의 우주생성론이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생성의 문제와 결부하고 있다.

즉 동양의 조형미술에는 바로 동양의 우주생성론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는 그 심원한 고대의 우주생성론의 심원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적다. 나 자신도 '영기화생론'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과거의 틀린 용어를 그대로 계속하여 썼을 것이다.

상상적 존재에 무게 두고 봐야

일본인이 치미라고 부르던 1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60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귀면(鬼面)을 용면(龍面), 즉 귀신의 얼굴을 용의 얼굴로 새로이 인식하면서 '용마루'의 양끝은 자연히 '용의 꼬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용의 꼬리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취두(鸞頭:독수리 머리)라는 용어도 적지 않게 쓰고 있어서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또 같은 치미를 두고 당(唐)이후 부터는

치문(鷓吻)이라고도 부른다. 혹은 봉황이라고도 부른다. 도대체 지붕 용마루 양끝의 형태를 두고 왜 이렇게 수많은 용어가 생기는 것일까. 치미-치문-봉황-취두-취와 등,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용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현실에서 보는 비슷한 형태를 가져다가 빗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동양 3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치미이다. 그런데 이상에 든 모든 용어들은 틀린 것이다. 현실에서 본 비슷한 형태를 각각 취하여 말했다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지붕 양끝의 형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용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용의 꼬리이다.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시대의 건축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의 예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의 불화에서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일본 지온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14세기 초의 관경변상도를 보면 정신이 비껴난다. 지붕을 운통 용과 보주로 장엄하고 있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티킷한 스님이 추천한 어린이 화

화가가 샐어요

추천도서 선정
행복한아침독서
학교도서관지널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티킷한 스님 추천 동화

이 책은 화가 우리의 한 부분이며, 고요하게 마음을 챙기며 앉았기와 호흡하기를 통해서 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불쾌한 상황을 즐겁게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 티킷한 스님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 문태준 옮김
양장본 ● 값 9,000원

어린이를 위한 화해와 우정 이야기

천천히 걸다보면

추천도서 선정
행복한아침독서
서울시교육청

걷기 명상을 통해 미술처럼
평화롭게 화를 풀고 우정을 지키는
화해와 우정 이야기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안이 의외로 허자, 붉은 머리털을 산발한 '화'가 나타나서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화'라는 강렬한 감정을 다루면서 평화롭게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몸으로 가르친 것이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의 수를 세고 그 발걸음과 호흡을 서로 맞추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 빠른 방법이다.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 문태준 옮김
양장본 ● 값 9,800원